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오늘 오전에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관세 우려로 미 소매 판매 2개월째 줄어
- Bloomberg: 미 산업 생산도 2개월째 계속 하락
- WSJ: 연준이 인플레이 둔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많은 수출업체들 더 이상 달러 선호하지 않아
- Bloomberg: 미 국채 가격 상승세 유지...연준 금리 동결 상황

#### [미 세제 정책]

- Bloomberg: 상원 법안, 기업 세금 감면 확대하고 주·지방 소득세 협상은 지연

#### [오일]

- WSJ: 국제 에너지 기구(IEA), "석유 공급 양호하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불확실성 커진다"

#### [주택]

- YahooFinance: 미국 주택 건설업체 신뢰 지수 2022년 말 이후 최저치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제트블루, 여행 수요 부진 예상으로 비용 절감 조치
- WSJ:볼보-다임러 트럭, 차량 소프트웨어 합작법인 "코레투라" 출범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Retail Sales Drop for Second Month as Tariff Anxiety Sets In** **관세 우려로 미 소매 판매 2개월째 줄어**

- 5월 들어 미 소매 판매가 2개월째 줄어들었다. 관세와 개인 재정 상황 소비자들 이 연초의 적극적인 구매에서 뒤로 물러선 것이다.
- 연방 상무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 조정 없이 소매 전체 구매 가치는 올해 초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. 감소 폭은 0.9%. 4월에는 소매 지출이 0.1% 줄어 두 달 연속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.
- 13개 품목 종류 중에서 7개가 하락했는데 빌딩 자재, 가솔린, 자동차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. 이들은 관세 예상 전에 서둘러 매입하다 이번에 매출이 줄어들었다. 식당 매출이 지난 2023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US Industrial Output Declines for Second Time in Three Months****미 산업 생산도 2개월째 계속 하락**

- 미 산업 생산도 5월 들어 0.2% 감소했다. 3개월중에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. 특히 유틸리티 생산이 둔화 되는 등 제조 업체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구체적으로 제조 생산은 5월에 자동차 조립 등으로 0.1% 상승한 반면에 유틸리티 생산은 2.9% 하락했다.
- 현재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정책과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들이 수요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고 단기적으로 생산업체들을 위한 전망도 어려운 상황이다.

## Bloomberg 기사

**WSJ: Why the Fed Isn't Cutting Rates Despite Cool Inflation****연준이 인플레이 둔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**

- 최근에 인플레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연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대 인플레이는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 인플레이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
-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상황과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 상승 리스크의 서로 상반된 금리 변동 요인을 저울질하고 있다.

## WSJ 기사

**[미국 금융]****Bloomberg: Many Exporters No Longer Want Dollars, US Bank Executive Says****많은 수출업체들 더 이상 달러 선호하지 않아**

-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 수출업체들로부터 요청들 받는다.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유로, 중국 위안화, 멕시코 페소, 캐나다 달러로 받을 수 없느냐고.
- 달러는 올해 다른 주요 통화보다 8%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수출업체들은 달러 보유를 줄이려는 주세를 보이고 있다.
- 이같은 달러를 회피하는 방식은 무역 결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남미와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수출업체들은 계약 시 자국 통화나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다른 대체 통화 결제를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Treasuries Hold Gains as Fed Rate-Cut Expectations Remain Intact****미 국채 가격 상승세 유지...연준 금리 동결 상황**

- 오늘 화요일 미 소매 판매 데이터가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2년물 국채 금리는 3.95%, 10년물은 4.42%를 기록하고 있다.
-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한 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10월에 금리 인상은 완전히 반영하고 있고 연준이 내년 6월과 7월에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## Bloomberg 기사

**[미 세제 정책]****Bloomberg: Senate Bill Expands Business Tax Breaks, Delays Deal on SALT****상원 법안, 기업 세금 감면 확대하고 및 주·지방 소득세 협상은 지연**

-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(TCJA)을 영구화하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상향한 법안을 제시했다.
- 이는 가계와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, 메디케이드 혜택 감면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.
- 또한, 주 및 지방세 공제(SALT)에 관해서는 하원안에 제시되었던 40,000달러 상한선을 기존의 10,000달러로 유지함에 따라 이 항목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유지하되 “placeholder” 조항으로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.
-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유한 개인과 기업만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고, 일부 경제학자는 이 세금 인하 계획이 이미 급증하고 있는 정부 적자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 경고한다.

## Bloomberg 기사

**[오일]****WSJ: Oil Market Well Supplied But Geopolitical Risks Bring Uncertainty, IEA Says****국제 에너지 기구(IEA), “석유 공급 양호하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불확실성 커진다”**

- 국제 에너지 기구(IEA)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석유 시장의 공급이 풍부하고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.
- 이 기관에 따르면,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운송 면에서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550만 배럴 정도로 정점에 도달할

것으로 예상된다.

- 또한, 비OPEC+ 산유국들이 전 세계 공급 증가의 약 3분의 2를 담당할 것이고,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량의 40%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.
- 이들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급 부진으로 인해 2025년 세계 석유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바 있다. 이어, 내년 전망치 또한 경제 성장을 둔화와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 증가로 인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밝혔다.

WSJ 기사

### [주택]

#### **YahooFinance: US Homebuilder Sentiment Drops to Lowest Level Since End of 2022**

##### **미국 주택 건설업체 신뢰 지수 2022년 말 이후 최저치**

-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6월 신뢰도가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. 잠재적 구매자들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세,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.
-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주택 건설업 신뢰 지수가 3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실제로 전미 주택 건설협회(NAHB)와 웰스파고 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2포인트 하락한 32에 그쳤다.
- 전미 주택 건설협회(NAHB) 분석가 Robert Dietz는 올해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단독주택 착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구매를 꺼리는 구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또한, 건설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주택당 평균 1만 1천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, 이에 따라 신규 주택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덧붙였다.
- 한편, 이번 주 수요일에 정부 월간 보고서를 통해 신규 주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상황이 제시될 예정이다.

YahooFinance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**Bloomberg: JetBlue Steps Up Cost Cuts on Weaker-Than-Expected Travel Demand**

##### **제트블루, 여행 수요 부진 예상으로 비용 절감 조치 확대**

- 제트블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예상보다 낮은 여행 수요에 따라 일부 항공편을 없애고, 여러 도시로 가는 서비스를 종료하며, 경영진을 재편하는 등 비용 절감 조치에 나섰다.
- 현재 제트블루는 지원 센터 예산을 삭감했고, 채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지출도 재검토하고 있다.
- 운항 중인 기존 에어버스 항공기 10대 중 4대를 정비 대상에서 제외해 여름 말 까지 운행시키지 않을 계획이다.
- 제트블루 최고경영자 Joanna Geraghty는 “여전히 차입금에 의존해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수익성 회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”이라며 다른 항공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려 했던 두 차례의 실패에 직면했음을 언급했다.

- 제트블루는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미 전체 수용 능력을 줄였고, 20개의 도시에서 운영을 축소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## WSJ: Volvo, Daimler Truck Launch Vehicle Software Joint Venture 볼보-다임러 트럭, 차량 소프트웨어 합작법인 “코레투라” 출범

- 트럭 제조업체 볼보와 다임러 트럭이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 나서며, 공동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작법인 ‘코레투라 (Coretura)’를 출범시켰다.
-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두 기업은 이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개인의 요구에 기존 차량보다 더욱 쉽게 적응하고자 한다 밝혔다.
- 두 기업 모두 이 플랫폼을 사용해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 트럭과 버스를 생산할 예정이며, 향후 다른 제조업체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다임러 트럭 CEO Karin Radstrom은 “코레투라를 통해 트럭과 버스의 디지털 중심 미래를 여는 관문이며, 상용차를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”고 전했다.

## WSJ 기사

## [보고서]

## "BofA "외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수요에 균열"...또 경고음" 각국 중앙은행 등 미 국채 보유량 3월 말 이후 감

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우려 속에 '셀 아메리카'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, 각국 중앙은행들이 3월 이후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.

16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(BofA)의 메건 스위버 등 전략가들은 '외국의 미 국채 수요에 균열이 보인다'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